

한국어 조사의 분포와 통합 체계 연구: 부사격 조사를 중심으로*

김용하
(안동대학교)

Kim, Yong-Ha. 2009. A Study on the Distributions and Syntagmatic System of Korean Particles; Focused on Adverbial Case Particl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1). 65-89. In discussing the structure of Korean NP,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particles and analyze the system of their combinations. This paper tries to explicate the distribution of Korean particles and the system of their combinations in a way of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Korean NP. Especially, this paper concerns itself with the properties of the so-called adverbial case particles, which are generally treated as having the same categorial feature as that of prepositions in languages like English. Based on Pesetsky and Torrego's (2004) analysis of P as a head within the nominal projection DP, this paper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adverbial case particles sheds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Korean NP and the correlations among Korean particles.

Key Words: 조사, 조사구, 전치사, 후치사, 명사적 투사, 동사적 투사, 명사적 수식, 동사적 수식, 관형성, 부사성, 최강 일률성 조건, 어휘 매개변인 가설

1. 들머리

한국어의 명사구 구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명사의 후접 요소들인 조사의 분포를 따지고 그 통합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본고는 한국어의 명사구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의 분포와 통합 체계를 밝히고자 하되, 그 첫 단계로서 흔히 부사격 조사라 불리는 일련의 조사들의 분포적 특징에 기초하여 명사 후접 요소를 중심으로 한 명사적 투사체(nominal projection)의 구조와 분포를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명사구라는 용어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안동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보다 명사적 투사체란 말을 선택한 것은 본고가 명사구의 투사를 범주 N의 투사가 아니라 D의 투사로 보는 생성문법의 일반적인 분석(Abney 1987, Fukui · Speas 1986)과, 명사구와 조사의 결합에서 조사를 핵으로 분석한 국어학의 연구 성과들(임동훈 1991, 김용하 1999, 임흥빈 1999, 이정훈 2004, 2007)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¹⁾ 그런데 이처럼 조사를 명사적 투사체의 핵으로 볼 경우, 특히 부사격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를 인구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후치사로 볼 수 있는가?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구성체들의 문법 기능이나 의미를 살펴보면 (1)의 의문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반드시 인구어 전치사에 대응하는 P라는 범주를 설정하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된 많은 국어학계의 연구들에서 부사격 조사를 P와 유사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부사격 조사가, 후핵 언어(head-final language)인 한국어에서 명사의 후접 요소로 나타나는 후치사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난점과 만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가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인구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가 이끄는 구성체가 그 자체로는 명사(구) 수식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2) 부사격 조사구가 PP라면 왜 그 자체만으로는 명사구 수식어가 될 수 없는가?

부사격 조사구가 그 자체만으로 명사구 수식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부사격 조사가 연결된 구성체가 명사구 수식을 아예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부사격 조사구가 명사구 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격(혹은 관형격) 조사 “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는 곧 부사격 조사구가 왜 관형격 조사 “의”의 도움을 받아야만 명사구 수식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으로 환원되며, 궁극적으로는 (3)과 같은 의문에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3) 속격 조사 “의”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 본고는 한국어에 명사적 수식(관형성)과 동사적 수식(부사성)의 구별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되는 논증을 통해 위의

1) 조사를 포함한 명사구를 명사적 투사체라 부른다면 문장·절은 동사적 투사체(verbal projection)라 부를 만하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범주를 언급하여 DP, CP, 혹은 조사구 따위의 구체적인 구를 언급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명사적 투사체와 동사적 투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의문들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얻게 되면 이는 명사구 후접 요소가 명사적 투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하는 의문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것인바, 우리는 다음의 의문에 대해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답을 얻게 될 것이다.

(4) 보조사와 구조격 조사는 자체의 투사를 갖는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범주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인구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후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조사구의 구조 분석을 제시할 것인바, 부사격 조사가 명사적 투사에 참여하는 요소임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조사구 구조에 입각하여 조사들의 분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5장은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2. 부사격 조사의 범주

한국어에는 전통적으로 부사격 조사라 불리는 일련의 조사들이 있다(cf. 최현배 1937). 아래 문장들에서 밑줄 친 요소들이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들이다.

- (5) a. 철수가 고향에서 떠났다.
 b. 순희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c. 철수가 감기로 앓는다.
 d. 순희가 학교에 다닌다.
- (6) a. Tom left from his hometown.
 b. Jane gave a book to Tom.
 c. Tom suffers from a cold.
 d. Jane goes to school.

(5)의 한국어 예문에 대응하는 (6)의 영어 예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부사격 조사들이 의미 상·기능 상 인구어의 전치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이 이들을 전치사에 대응하는 후치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cf. Ahn 1988, 김용하 1999). 이런 의미 상·기능 상의 유사점과,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거울 영상(mirror image) 언어임을 고려한다면 (5)의 밑줄 친 조사들을 후치사로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사격 조사를 전치사와 비교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영어(혹은 인구어)의 경우 전치사의 보충어(complement) NP/DP가 형태론적인 격 표시가 된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격 이론을 정립한 Chomsky(1981)는 전치사가 자신의 보충어 NP/DP에 사격²⁾을 부여한다는 격 부여 원리를 제시한다.³⁾

(7) NP는 P에 지배되면 사격이다(Chomsky 1981: 170).

(8) [P [NP]]


각주 3에서 밝혔듯이 영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의 보충어 NP/DP에 실현되는 격이 대격이다. 어쨌든 (7)은 P 자체가 격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그 보충어 NP/DP에 따로 격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에 의하면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들이 P라 할 경우 이들도 (9)에 처처럼 자신의 보충어 NP/DP에 사격/대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9) [[NP] P]


우리가 현재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가 P에 해당하는 후치사라고 가정한다는 점을 상기하자. 격 여과 때문에 NP/DP가 반드시 격을 받아야 한다면, 그리고 (9)에 의해 부사격 조사의 보충어 명사구에 격이 부여된다면 그 격은 어떻게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의 예들에서 보듯, 후치사의 보충어 명사구에는 어떤 격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cf. 오충연 2001: 57-58).

(9)에서 보충어 NP/DP가 어떻게든 격을 부여받았다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행스럽게도, 한국어에서는 전치사의 보충어 NP/DP뿐만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와 같은 논항 NP/DP들이 아무런 표면적 격 실현 없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안병희(1966), 이남순(1988)은 부정격(*indefinite case*)이라 부르고, 민현식(1982), 김영희(1991), 김용하(1999)는 무표격(*unmarked case*)이라고 불러 격이 아예 부여조차 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2) 사격(*oblique case*)은 원래 고대 그리스어 문법에서 주격 이외의 격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었지만(cf. Blake 1994), 아래 (7)에서 사격은 구조적인 주격, 대격, 속격 이외의 격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7)은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격 부여 원리이다. 영어는 형태론적 격이 빈약하기 때문에 대명사만이 대격으로 꼭용을 하는바, 전치사의 보충어 NP/DP에는 대격이 실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Chomsky 1981: 172).

- (10) a. 철수∅, 학교에 갔어요? (무표 주격)
 b. 순희도 그 책∅ 샀어. (무표 대격)
 c. 나는 순희∅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 (무표 속격)

이처럼 무표격 NP/DP가 나타날 수 있는 한, (5)에서 부사격 조사들과 결합한 NP/DP도 역시 무표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일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NP/DP가 무표격으로 나타난다면 (5)는 (11)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1) a. 철수가 고향∅에서 떠났다.
 b. 순희가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c. 철수가 갑기∅로 앓는다.
 d. 순희가 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10)에서 밑줄 친 무표격 NP/DP들은 외현적으로 격이 실현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반면, (11)에서 밑줄 친 무표격 NP/DP들은 외현적으로 어떤 격도 실현되어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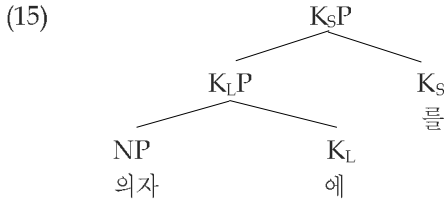
- (12) a. 철수가 학교에 갔어요?
 b. 영희도 그 책을 샀어.
 c. 나는 영희의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
 (13) a. *철수가 고향이/을/의에서 떠났다.
 b. *순희가 철수가/를/의에게 책을 주었다.
 c. *철수가 갑기가/를/의로 앓는다.
 d. *순희가 학교가/를/의에 다닌다.

이처럼 부사격 조사의 보충어 명사구에 격이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부사격 조사와 보충어 명사구 간의 결합 관계가 전치사와 그 보충어 명사구 간의 결합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⁴⁾ 오히려 한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뒤에 구조격 조사가 연결될 수는 있다(cf. 김영희 1999ㄱ, Yang 1996).

4) 한국어의 명사 후접 요소들 사이의 결합 순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사격 조사가 명사에 가장 가깝게 결합하고, 그 뒤를, Yang(1972)의 용어를 빌리자면, X-lim, Y-lim, Z-lim 조사들이 뒤따른다. 이는 (13)의 예들은 이러한 후접 요소들 사이의 결합 순서 제약을 어긴 것이라고 치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결합 순서 제약과 같은 표면 제약만으로 (13)의 비문법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은 바로 아래에서, 그리고 3절에서 더 논의될 것이다.

- (14) a. 손님이 의자에 앉는다.
 b. [?]그 공장에가 불이 났다.

부사격 조사를 P에 해당하는 후치사로 취급할 경우 (14)와 같은 예들에서는 후치사구에 어찌하여 구조격 조사가 다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사격 조사를 P에 해당하는 후치사로 보기보다 일종의 격 표지로 보는 것이다.⁵⁾ 격이 전통적으로 의미격과 문법격(cf. Fillmore 1968, Blake 1994), 혹은 어휘격과 구조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사격 조사들은 의미격 혹은 어휘격을 표시하고 그 외 구조격 조사들은 문법격/구조격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논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정훈(2004, 2007), 임동훈(1991, 2008), 임흥빈(1999)이 이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정훈(2004, 2007)은 (14)의 ‘의자에’를 다음과 같이 어휘격 조사와 구조격 조사가 중첩된 것으로 분석한다(K_S =구조격 조사, K_L =어휘격 조사).



격이 의미격/어휘격과 문법격/구조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면 (14)와 같은 예들은, 구분되는 두 종류의 격이 이처럼 중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⁶⁾ 그런데 부사격 조사를 어휘격/의미격 표지로 보는 접근법은 부사격 조사구가 서술어와 특정한 어휘·의미적인 관계(의미역 관계)를 맺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어휘격/의미격이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개념에 크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⁷⁾ 즉 어휘격/의미격 조사라는 명칭은 해당 조사가 특정 서술어의 논항으로 나타날 때가 아니면 적용하기가 어려운 명칭인 것이다. 부사격 조사가 주로 어휘격/의미격 표지로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

- 5) ‘부사격 조사’라는 전통적인 명칭에 ‘격’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라. 이러한 명칭은 부사격 조사라 불리는 일련의 조사들이 자신들과 결합하는 명사구를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붙은 것이다(cf. 최현배 1937). 따라서 전통적인 명칭에 붙은 ‘격’은 대단히 느슨한 개념임을 주의해야 한다.
 6) 임흥빈(1999)은 이정훈(2004, 2007), 임동훈(1991)과 약간 다른 분석 방식을 택한다. 그는 (부사격이든 구조격이든) 격조사가 항상 NP를 보충어로 취하며 이들 조사들이 중첩될 경우 먼저 NP와 결합한 조사의 투사체가 NP로 재분석된다고 보아 격조사가 항상, 일종의 하위범주화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처리한다.
 7) 격을 이렇게 파악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허용(1983)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의”를,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요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결조사(이음토씨)로 분류하고 있다.

이기는 하나, 부사격 조사구는 어떤 서술어와 특정한 어휘·의미적인 관계(의미역)를 맺지 않고도 부가어로 쓰일 수 있다.

- (16) a. 아이가 마당에서 논다.
 b. 철수가 장작을 도끼로 켜다.
 c. 순희가 아침에 귀가했다.

(16)과 같은 예들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김영희(1999ㄱ)는 격 표시의 양상을 통해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나누면서 부사격 조사가 사격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후치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선 논항을 직접 논항과 간접 논항으로 나누고, 직접 논항에 결합된 부사격 조사는 사격 표시로, 간접 논항에 결합된 부사격 조사는 후치사로 간주한다.⁸⁾ 또한 부가어에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도 후치사로 간주한다. 따라서 김영희(1999ㄱ)에 의하면 (16)에서 밑줄 친 부사격 조사구는 모두 후치사구, 즉 PP이다. 부가어가 동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동사가 부가어인 부사격 조사구에 의미역을 부여할 수 없는 만큼, 부가어에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를 스스로 선행 명사구를 자신의 보충어로 결정하고 거기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핵으로서 후치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영희(1999ㄱ)의 부사격 조사 분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7) a. 사격 표시(oblique case marker): 동사의 직접 논항에 부여되는 사격을 표시함.
 → 철수가 고향에서 떠났다.
 b. 비서술적 후치사(non-predicative postposition): 동사가 간접 논항에 부여하는 의미역을 이차적으로 부여함.
 → 철수가 이 학교에 다닌다.
 c. 서술적 후치사(predicative postposition): 보충어 NP와 함께 부가어를 이끄는 핵.
 → 순희가 마당에서 논다.

김영희(1999ㄱ)의 (17)과 같은 분류가 기술적으로(descriptively)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⁹⁾ 이러한 분류 결과에 따르면 사격 표시로서의 부사격 조사가 명사구

8) 그의 이러한 논항 분류는 김영희 1999ㄴ에 따른 분류이다. 그의 논항 분류에는 분열문(cleft sentence)에서 “이다” 앞 초점 성분으로 나타날 때, 직접 논항과 간접 논항은 부사격 조사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9) 김영희(1999ㄱ)의 분류는 영어 전치사와 관련된 Van Valin · Lapolla(1997)의 역할-참조 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적 논의에 기댄 바 크다. 한정환(2003)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는 조사

와 결합하면 그 구성체는 그대로 명사구가 되며, 후치사로서의 부사격 조사구가 명사구와 결합하면 그 구성체는 후치사구가 된다.¹⁰⁾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동일한 형태소들인 요소들을 이처럼 의미적 기준에 의거하여 완전히 다른 범주(격 표지 대 후치사)로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음 예를 보자.

- (18) a. *철수의 서울에서 출발
 b. 철수의 서울에서의 출발
 (19) a. *광대의 앞집에서 유희
 b. 광대의 앞집에서의 유희

(18b)와 (19b)의 문법성에 비추어 볼 때 (18a)와 (19a)의 비문법성은 부사격 조사구가 “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 부사격 조사구들이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터인데, 김영희(1999ㄱ)의 분류는 (18a)를 문법적인 것이라고 할, 잘못된 예측을 유발한다. 다음 예를 보자.

- (20) a. 철수의 서울 출발
 b. *광대의 앞집 유희

김영희(1999ㄱ)에 기대자면, 무표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20a)의 “서울”은 “출발”의 직접 논항일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20b)의 “앞집”은 부가어일 것이다. 이것은 곧 (18a)의 “서울에서”에서 “에서”는 사격 표지임을 뜻하고 (18b)의 “앞집에서”에서 “에서”는 후치사임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18a)의 “서울에서”를 명사구로 취급해야 하고 (18b)의 “앞집에서”를 후치사로 취급해야 한다. “의”의 출현에 대해서 기술할 때, 이들 예에 나타나는 “에서”를 김영희(1999ㄱ)처럼 분류할 경우 우리는 (21a)와 같은 일반화에 기대야 하고, 서술성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상관없이 후치사로 단일하게 취급할 경우 (21b)와 같은 일반화를 얻을 수 있다.

- (21) a. 후치사구는, 그리고 사격으로 표시된 명사구는 자신이 포함된 명사구 내에서 “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b. 후치사구는 자신이 포함된 명사구 내에서 “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를 핵으로 보지 않는다. 임동훈(2008)에 따르면 전치사/후치사에 대한 이런 분류의 연원은 Bresnan (1982)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10) 서술적 후치사가 되느냐 비서술적 후치사가 되느냐는 관련 서술어의 논항이 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더 간단한 것이 더 좋다는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면 (21a)과 (21b)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일반화인가는 명확하다. 이로써 우리는 김영희(1999)의 기술적(descriptive) 사실을 포괄하면서도 부사격 조사를 단일 범주로 취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타당한 분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 절의 논의를 통해서 모든 경우의 부사격 조사를 일률적으로 어휘격/의미격 조사로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의미적 기준에 의거하여 범주를 달리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부사격 조사를 후치사로 분석하는 것뿐이다. 이후의 논의는 부사격 조사를 후치사로 취급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이 될 것이다.

3. 조사구의 구조

조사가 명사 후접 요소들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가 포함된 구성체의 구조는 곧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를 밝히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명사구는 NP라는 어휘 범주 투사체로 여겨져 왔지만 Abney(1987) 이후 명사구의 완전 투사체가 DP라는 것은 성문법에서 거의 확립된 이론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명사구의 완전 투사체도 DP인가? 만일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D에 해당하는 범주는 무엇일까? Ahn(1988)은 한국어에서 D에 해당하는 유력한 범주는 구조적 조사들과 일부 보조사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용하(1999)는 격조사를 비롯한 일부 보조사가 D에 해당하는 범주라고 주장했다.¹²⁾ 김용하(1999)에 기대면, 이들 조사들을 D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 양화사(universal quantifier)와 부정 극성어(negative polarity item) 형성에서 일련의 보조사들이 진정한 양화 효력(quantificational force)을 가진다(cf. Watanabe 1992, 2006).¹³⁾

(22) a. 보편 양화사: 누구_나, 무엇_{이나}, 어디_나, 언제_나, 어느 ..._나

11) 김영희(1999)에 대한 비판은 임동훈(2004)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임동훈(2004)의 비판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의 비판이 본고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기서 그의 비판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12) Ahn(1988), 김용하(1999) 외에도 홍용철(1994), Yang(1996), Yoon(1990), Ahn · Yoon(1989) 등이 조사를 D에 해당하는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김용하(1999)의 주장은 Watanabe(1992)와 Kang(1988)의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Watanabe(2006)는 일본어 명사구의 구조를 다루면서 일부 일본어 조사들이 양화 효력을 가지는 D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다시 펼치고 있다.

13) “도”와 “나” 같은 보조사들이 양화 효력을 가졌다는 것은 다음에서처럼 대명사 “그것”이 변형 결속되는 데 이들 보조사들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데서 드러난다(cf. Kang 1988).

i) [어느 비행기]_i의 승객_i나/도 그것_i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b. 부정 극성어: 아무도, 아무것도, 어디도, 아무 ...도

둘째, “도”, “(이)나”처럼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은/는”, “(이)야”와 같은 보조사는 물론 격조사 “이/가”, “을/를” 등이 “도”, “(이)나”와 같은 명사 후접 위치를 차지하면서 선행 명사구의 특정성(specificity)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cf. Ahn 1988, Kim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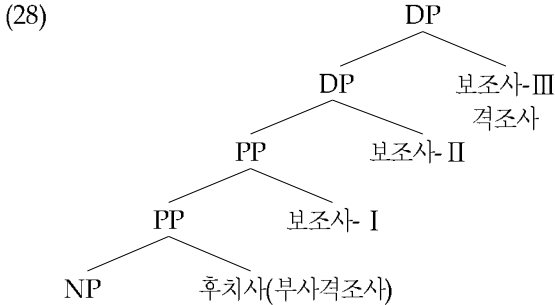
- (23) a. 철수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특정적 의미)
 b. 철수가 사과 세 개 먹었다. (비특정적 의미)
- (24) a. 사과 세 개가 필요하다. (특정적 의미)
 b. 사과 세 개 필요하다. (비특정적 의미)
- (25) a. 옛날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신정보)
 b. *옛날 옛날에 한 임금님은 살았습니다. (구정보)

셋째, “도”, “(이)나”, “은/는”, “야” 등의 보조사와 구조격 조사들은 wh-어구와의 결합 가능성에서 완전히 상보적 분포를 보여준다.

- (26) a. 누가 철수를 보았니?
 b. *누구는/도/나/야 철수를 보았니?

위에 제시한 세 가지 특징들은 D에 전형적인 것이므로 조사를 D에 속하는 범주로 설정하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하(1999)는 한국어의 조사를 (27)과 같이 분류하고 그 구조를 (28)과 같이 설정한다.

- (27) a. 후치사: 예, 에게, 에서, 로 ...
 b. 보조사-I(후치사): 까지, 부터 ...
 c. 보조사-II: 밖에, 조차, 마저, 만, 나마 ...
 d. 보조사-III: 이나, 은, 도, 이야, 이라도 ...
 e. 격 조사: 이/가, 을/를, 의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27)의 분류와 (28)의 구조는 조사 분류와 조사구 구조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⁴⁾ 일단 이러한 구조를 상정하고 부사격 조사를 전치사에 대응하는 후치사라고 가정해서 명사구와의 상대적 위치를 왼쪽으로 돌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대응하는 범주들 간의 위치 상 차이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9) a. 한국어: D ... P ... NP
 b. 영 어: P ... D ... NP

(29)가 명백히 보여주듯 한국어에서는 P가 명사구에 가장 가까운 요소이지만 영어에서는 P가 가장 멀리 떨어진 요소이다. 더욱이 영어에서는 P가 자신의 보충어 DP에 격을 부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P가 NP와 직접 결합하여 PP를 이루고 여기에 구조격 조사를 포함한 D 요소들이 다시 결합된다.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를 후치사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9)에서 드러나는, P와 D 간의 위치 상 차이가 두 언어에 본유적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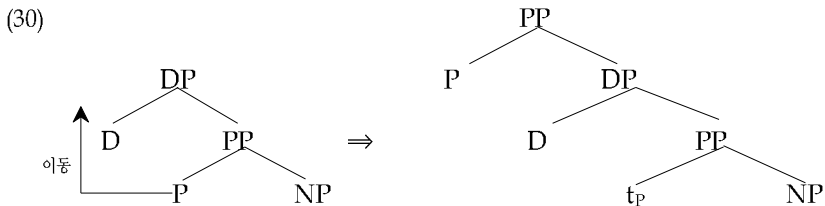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전치사는 어휘 범주의 일종으로서 자체의 투사체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생성문법 내에서도 Chomsky(1970) 이후부터 전치사를 어휘 범주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⁵⁾ 이 경우 전치사구는 명사적 투사체(nominal projection; NP, DP)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적 투사체와는 독립적인

14) 논란의 여지란 주로 범주 명칭에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조사-I을 일종의 P로 처리하는 것에 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cf. 김용하 1990).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의 보조사들을 D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15) 어휘 범주를 [$\pm N$, $\pm V$]라는 범주 자질로 명세하는 것은 Chomsky(1970, 1974) 이래로 거의 확립되었다. P는 주요 어휘 범주들 중의 하나로서 [-N, -V] 자질을 가지므로 [+N, -V] 자질을 갖는 명사와는 완전히 변별된다.

투사체로 간주된다.16) 그러나 DP를 명사적 투사체의 최종 구성체로 볼 경우, (29)에서 보듯 한국어에서는 후치사가 명사적 투사체의 일부이다. 이들이 명사구와의 상대적 위치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핵 매개변인 때문에) 전치사/후치사로만 구별될 뿐 P라는 동일 범주로 묶인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29)의 차이가 본유적인 차이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최근 Pesetsky · Torrego(2004)는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그들에 따르면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도 전치사가 원래 NP와 가장 가까이 결합하는 기능적 요소이며, 전치사구는 DP 내부에 있던 전치사가 핵 이동하여 이동한 위치에서 투사함으로써 생기는 범주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17)18)



Pesetsky · Torrego(2004)는 (31)에서 P가 이동하는 것이 T(시제) 자질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Chomsky(2001, 2008)의 입장을 지지하므로 P의 이동에 시제 자질이 간여한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P를 D 아래에 설정하고 이것이 이동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 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본다. 즉 전치사가 (30)과 같이 DP 구조 내에 매입된 채로 기저 생성되는 것이라면, 영어를 비

16) Abney(1987)은 전치사가 어휘 범주라는 데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는 전치사를 어휘 범주와 기능 범주의 중간쯤 되는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Grimshaw(2005)는 P를 완전한 기능 범주로 취급한다.

17) (30)에서 P가 이동하는 것은 언뜻 핵-이동(head-movement)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Pesetsky · Torrego(2004)는 이를 핵-이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핵에 직접 부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Matushansky(2006)가 제안한 대로 D의 지정어 위치에 이동하는 방식이다. Matushansky(2006)는 핵-이동이 XP-이동과 마찬가지로 지정어 위치를 표적으로 하는 이동이며, 핵과 핵 간의 결합은 형태론적 병합(morphological merger)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Chomsky(1995)의 주장과는 달리, 핵-이동을 더 이상 PF 부분의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통사적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Matushansky(2006)의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30)에서의 P 이동은 Donati(2006)가 *wh*-핵-이동에 대해 내놓은 분석과 같은 방식의 이동을 겪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 만큼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18) (30)에서의 P 이동은 Pesetsky · Torrego(2001)의 T→C 이동을 P→D 이동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상세한 정당화는 Pesetsky · Torrego(2004)를 참고하라.

롯한 인구어와 한국어에서 P에 해당하는 요소가 서로 동일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물론 어순은 논외이다). V-v-INFL-C 등의 핵의 투사로 이어지는 투사체를 동사적 투사체(verbal projection)라 명명하고 N-n-P-D 등의 핵의 투사로 이어지는 투사체를 명사적 투사체(nominal projection)라 명명해 보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편적인 동사적 투사체와 명사적 투사체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왼쪽에 있는 요소일수록 구조적 위계가 높다).¹⁹⁾²⁰⁾

- (31) a. 동사적 투사체: C ... INFL ... v ... VP
 b. 명사적 투사체: D ... P ... n ... NP

이로써 인구어의 전치사든 한국어의 후치사든 P는 명사적 투사체의 일부인 것이다. 영어에서 표면적으로 전치사가가 최종적인 명사구 투사체가 되는 것은 도출을 거친 후의 일이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최강 일률성 가설과 어휘 매개변인 가설에 부합한다.

- (32) a. 최강 일률성 가설(Strongest Uniformity Hypothesis): 반대되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언어들이 일률적이라고 가정하라(Chomsky 2001, Sigurðsson 2003, Miyagawa 2004, 김동석 외 2006). 변이는 쉽게 발견 가능한 발화 속성들에 국한된다.
 b. 어휘 매개 변인 가설(Lexical Parametrization Hypothesis): 매개 변인은 어휘부 속성에 국한된다(Borer 1984).

(32a)의 최강 일률성 가설은 보편문법의 존재를 상징하는 생성문법의 근본적 입장을 가장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설이다. 물론 이는 많은 언어들의 경험적 사실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론을 더욱 제약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언어의 동사적 투사체와 명사적 투사체의 근본적인 구조가 동일하다고²¹⁾ 보는 것은 곧

19) 동사적 투사체와 명사적 투사체를 Grimshaw(2005)의 확대 투사(extended projection)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앞서서도 밝혔다시피 명사적 투사와 동사적 투사가 서로 병렬적임은 Chomsky(1970)의 X'-이론 제안 이래로 일반화되었으며, Abney(1987)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소주의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Svenonius(2004)와 Hiraiwa(2005)를 참고할 만하다.

20) (31)에는 기능범주로서 v와 n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맡고 있는 기능들 중 한 가지는 범주 중립적인 어근을 동사 혹은 명사로 만드는 것이다(cf. Marantz 1997). 이런 측면에서라면 (31)의 VP와 NP는 \sqrt{P} (어근구; root phrase)가 되어야겠으나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VP와 NP를 그대로 표기했다. 물론 언어에 따라 '...' 부분에 다른 요소들이 끼어들 수도 있지만(cf. Rizzi 1997),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31)의 기본 요소들로부터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1) 어찌하여 동사적 투사체와 명사적 투사체에 참여하는 핵들의 순서가 (31a, b)와 같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

최강 일률성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며, 영어의 전치사를 한국어의 후치사(=부사격 조사)와 동일하게 NP와 가장 가까이 결합되는 요소로 처리하여 이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임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32b)의 어휘 매개 변인 가설에 의하면 영어의 P가 이동을 하는 것이나 한국어의 P가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P 자체와 관련 핵(아마도 D)의 어휘적 속성/자질이 간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치 영어의 *wh*-어구는 외현적 이동을 해야 하지만 한국어의 *wh*-어구는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wh*-어구나 C의 속성/자질 때문이듯, 영어의 P 이동과 한국어의 제 자리 P도 P 자체나 D의 속성/자질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된 속성/자질이란 것은 어떤 것들일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본고는 이런 가능성만 일단 제기해 둔다. 본고의 관심은 P가 (31b)에서처럼 D의 투사체 내부에 있다고 했을 때 조사구의 분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를 살펴계 될 것이다.

4. 동사적 수식, 명사적 수식, 그리고 조사구

조사구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격 이론 등 기존 이론에서 쓰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동사적 수식과 명사적 수식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은 한국어의 명사적 투사체와 동사적 투사체 내의 수식²²⁾ 관계를 적어도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포착해 준다. 즉 동사적 수식이란 동사적 투사체 내에서 핵의 수식 성분들이 핵에 대해 맞는 관계를 말하며, 명사적 수식이란 명사적 투사체 내에서 핵의 수식 성분들이 핵에 대해 맞는 관계를 말한다. 다음의 예들을 보라.

(33) a. 철수는 순희가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했다. (동사적 수식)

b. 순희가 학교에 다닌다는 철수의 생각. (명사적 수식)²³⁾

(34) a. 철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동사적 수식)

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 본고는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Grimshaw (2005)에 관련 논의가 있어 참고가 된다.

22) 여기서 수식(modification)이란 Radford(1988)의 의미로 핵 이외의 모든 성분(즉, 보충어, 지정어, 부가어 일체)들이 핵과 맞는 관계를 통하여 일컫는 말이다.

23) (33b)는 전형 보문(cf. 남기삼 1973) “순희가 학교에 다닌다”에 관형형 어미 “는”이 통합된 구성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흔히 “순희가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에서 “고 하” 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cf. 김영희 1981). 이럴 경우 사실 (33b)에서 명사적 수식에 관여하는 부분은 “고 하는”이 될 터인데,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명사적 수식을 위한 요소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b. 철수의 공손하는 인사. (명사적 수식)²⁴
- (35) a. 김 의원은 정부의 실책에 대해 언급했다. (동사적 수식)
 b. 김 의원의 정부의 실책에 대한 언급. (명사적 수식)
- (36) a.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동사적 수식)
 b.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기도. (명사적 수식)
- (37) a. 판사가 법률에 의하여 판결을 한다. (동사적 수식)
 b. 판사의 법률에 의한 판결. (명사적 수식)

위 예문들 각각에 대한 분석은 상술을 요하지만, 각 ㄱ 문장과 ㄴ 문장의 대조는 동사적 수식과 명사적 수식의 대조가 한국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듯하다. 이제 이처럼 동사적 수식과 명사적 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의 후치사구(PP)를 살펴보자. 앞서서도 지적했다시피 한국어의 PP는 (인구어의 PP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 명사의 수식어가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형격 조사 “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해당 예문인 (18)과 (19)를 여기에 (38)과 (39)로 재인용한다.

- (38) a. *철수의 서울에서 출발
 b. 철수의 서울에서의 출발
- (39) a. *광대의 앞집에서 유희
 b. 광대의 앞집에서의 유희

이들 예는 PP가 동사적 수식에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P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술어 “부사격 조사”는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1 ㄴ)에 의거하여 명사적 수사체가 DP로 완결되고 PP는 이 DP 안에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라. 그렇다면 PP 뒤에 의현적인 D 요소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영 형태소 D가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의 PP도 사실상은 \emptyset 가 이끄는 DP인 것이다.

(40) 표면상 PP로 보이는 DP: [DP [PP [NP ... N] P] \emptyset]

결국 표면상 PP로 보이는 구성체가 (40)과 같은 DP라면 (38 ㄱ)과 (39 ㄱ)으로 보아, PP가 포함된 DP들이 명사적 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D 요소인 \emptyset 의 탓이라 판단하기가

24) (34b)의 “공손한 인사”는 “[Op₁ [t_i 공손하] ㄴ] 인사₁]”와 같은 관계절 분석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공손한”이 관계절로 분석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듯하다.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인 변형론으로 이와 같은 구문을 다룬 김영희(1976), 그리고 이와 같은 구성체는 아니지만 범주 통용 문제를 다룬 이정훈(2005, 2006)을 참고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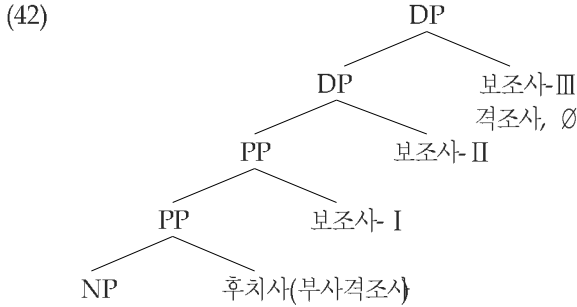
십상이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emptyset 가 직접 NP를 이끌 경우에는 명사적 수식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사적 수식도 가능하다.

- (41) a. 철수의 재미있는 소설 \emptyset 창작.
 b. 철수가 재미있는 소설 \emptyset 창작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이것은 \emptyset 의 명사적 수식 가능성과 동사적 수식 가능성이 본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emptyset 의 명사적 수식 가능성과 동사적 수식 가능성이 자신의 보충어 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²⁵⁾ 전통적인 술어를 차용하여 명사적 수식이 가능한 성질을 관형성(adnominality)이라 하고, 동사적 수식이 가능한 성질을 부사성(adverbiality)이라고 해 보자. \emptyset 는 D로서 범주자질을 비롯한 다른 자질은 명세가 되어 있으나 관형성이나 부사성과 관련된 자질은 미명세된 채로 투입되는 요소인 것이다. 김용하(1999)의 초범주(super-category) 형성이나 Grimshaw(2005)의 확대투사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하면서, 관형성과 부사성에 대해 미명세된 \emptyset 는 자신의 보충어 핵으로부터 관련 자질을 상속받는다.²⁶⁾

\emptyset 가 명사적 투사체를 완결 짓는 D 요소라면 이와 자연 부류를 이루는 것은, (28)로 볼 때 보조사-III과 격조사들일 것이다. \emptyset 를 포함시켜 (28)을 여기에 다시 (42)로 제시한다.

- 25) 모든 명사적 투사체가 DP로만 완결된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경우 PP가 명사적 수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증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D가 결합된 맨 PP(bare PP)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NP가 명사적 수식과 동사적 수식이 둘 다 가능하므로 NP가 \emptyset 의 보충어가 되어 DP를 이끌 경우 명사적 수식과 동사적 수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결코 증명될 수가 없다. 즉 \emptyset 의 명사적 수식 가능성과 동사적 수식 가능성이 자신의 보충어 핵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은 아주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고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 가지 방법은 DP로까지 투사가 완결되지 않은 맨 NP나 맨 PP가 독자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명사적 투사체가 DP로 완결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emptyset 의 명사적 수식 가능성과 동사적 수식 가능성이 자신의 보충어 핵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을 이론의 강요에 의한 작업가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 26) 관형성과 부사성이 보편적 어휘자질이 될 수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형용사와 부사를 일종의 이형태처럼 다룬 Radford(1988)의 논의도 관형성과 부사성이라는 자질과 관련해서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럼 명사적 투사체를 완결 짓는 D 요소들이 나타날 경우 명사적 수식과 동사적 수식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아래에서 보듯 소위 관형격 조사 “의”를 제외하고는 이들 중 명사적 수식이 가능한 조사는 없다.

- (43) a. *소설이 창작
 b. *소설을 창작
 c. 소설의 창작
- (44) a. (철수에 의해) 소설이 창작되었다.
 b. 철수가 소설을 창작하였다.
 c. *철수가 소설의 창작하였다.
- (45) a. *소설은 창작
 b. *소설도 창작
 c. *소설이야 창작
 d. *소설이나 창작
- (46) a. 철수가 소설은 창작하였다.
 b. 철수가 소설도 창작하였다.
 c. 철수가 소설이야 창작하였다.
 d. 철수가 소설이나 창작하였다.

관형성/부사성과 관련된 ∅와 이들 조사들의 차이는 곧 이들 조사들이 ∅와 달리 관형성/부사성에 대해 명세된 자질을 갖는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사적 투사를 완결하는 D 요소들을 분류할 수 있다.

- (47) a. 관형성: “의”
 b. 미명세: ∅

c. 부사성: 이, 을, 은, 도, 이야, 이나 ...

그렇다면 후치사와 최종 D 요소들 외의 조사들은 어떠한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체의 투사체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정훈(2004, 2007)과 임동훈(1991)은 보조사-III에 속하는 조사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보조사류가 자체의 투사체를 이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이들 보조사들이 결합한 구성체의 범주적 특성이 이들 보조사들로 인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조사-II에 속하는 “만”이 포함된 예들을 고려해 보자.

- (48) a. 철수는 소설만 창작한다. (명사구)
 b. 철수는 소설책을 대강만 읽는다. (부사구)
 c. 철수는 순회를 못살게만 군다. (절)

(48)에서 “만”이 자체의 투사를 이끈다고 가정한다면 어찌하여 이처럼 다양한 범주적 쓰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정훈(2004, 2007)과 임동훈(1991)의 주장은 언뜻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형성과 부사성이라는 자질을 상정한다면 (48)의 예들에서 “만”이 자체의 투사를 이끈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48)의 예들에서 “만”이 자신이 포함된 투사체의 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사성 자질을 갖고 있는 한 “만”의 투사체들이 동사적 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만”이 자체의 투사를 갖지 못한다면 왜 이런 보조사들이 “의”의 도움 없이는 명사적 수식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정훈(2004, 2007)과 임동훈(1991)의 분석대로라면 “만”과 같은 보조사가 결합된 명사구는 범주 변화 없이 명사구가 될 터인데, 명사구는 “의”의 도움이 없더라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즉 “만”이 이끄는 구성체가 명사구라면 맨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명사적 수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반대된다.

- (49) a. 소설만*(의) 창작 (cf. 소설 창작)
 b. 순회만*(의) 웃 (cf. 순회 웃)
 c. 민속만*(의) 연구 (cf. 민속 연구)

그렇지만 관형성/부사성이라는 자질을 상정하고 “만”이 자체 투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49)에서 “만”이 “의” 없이 나타날 경우 왜 비문법성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만”은 부사성 자질을 갖고 있어서 명사적 수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관형성 자질을

갖고 있는 요소인 “의”가 반드시 해당 명사적 투사를 완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의”가 해당 명사적 투사를 완결하면 전체 DP는 관형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결국 명사적 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만”과 같은 보조사들이 자체의 투사체를 이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을 비롯한 보조사들이 자체의 투사를 이끈다고 했을 때 한 가지 해명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곧 이들이 나타났을 때도 후치사의 경우와 같이 \emptyset 가 투사를 완결하기 위해 나타나야 한다고 가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책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런 보조사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emptyset 가 해당 투사를 완결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보조사들이 명사적 투사의 연장선상에 있을 경우에만 \emptyset 가 명사적 투사를 완결한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는 후자의 해결책을 택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보조사들이 항상 명사적 투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 형태소를 설정할 때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남용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48a)에서처럼 “만”이 명사적 투사의 연장선에 있을 경우에는 최강 일률성 가설에 의거해서 명사적 투사가 D에 의해 완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의거해서 \emptyset 의 설정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48b)와 (48c)에서 “만”이 보충어로 취하는 구성체는 그 투사가 D에 의해 완결되어야 하는 명사적 투사체가 아니다. 이럴 경우 \emptyset 가 투입되어 투사를 완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즉 (48b, c)에서 “대강만”과 “순회를 못살게만”이 “만”의 투사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emptyset 의 설정이 자의적인 것이 되고 만다.²⁷⁾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emptyset 가 명사적 투사의 완결을 위해서만 투입된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50) \emptyset 는 명사적 투사만을 완결 짓는 최종 D-요소이다.²⁸⁾

27) (42)에 따르면 “만”은 D에 해당하는 요소이므로 (48b, c)에서 문제의 구성체들은 DP가 될 것이다. 최종 D-요소에 해당하는 보조사-III 요소들도 명사적 구성체 외의 구성체들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또한 우리는 어찌하여 DP가 부가어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명사구 아닌 구성체와 D로 이루어진 DP가 부가어로 쓰이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예이므로 한국어에만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 (i) a. I like you [the most].
 b. He is speaking [the slowest].
 c. The strange thing is [this big].

그러나 이런 현상이 다른 언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DP가 어찌하여 부가어로 쓰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 답을 얻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8) 최종 D-요소들 중 “은, 도, 이나...” 등은 어찌하여 “만”과 같이 명사적 투사가 아닌 구성체와 결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최종 D-요소들이 명사적 투사에만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할 이유는 없다. 만일 오로지 \emptyset 만이 명사적 투사만을 완결시킬 수 있는 요소라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나 최종 D-요소들 중 “이, 을, 의” 등 구조적 조사들도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emptyset 의 이런 특성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들이 왜 “은, 도, 이나...” 등과 달리 명사적 투사에만 관여하는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관형성/부사성 자질로써 우리는 한국어의 조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51) a. 관형성: “의”
 b. 미명세: ∅
 c. 부사성: 그 외 모든 조사

이제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 중 “의”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답을 제공해야 할 단계에 온 것 같다. 기본적으로 “의”는 최종 D-요소들 중 유일하게 관형성 자질을 지니고서 명사적 투사체를 완결 짓는 조사이다. 또한 “의”는 자신이 투사를 완결 짓는 DP에 속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조격 조사라는 점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의”가 다른 구조격 조사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라는 점이다. 주격 조사 “이”, 대격 조사 “을” 등은 일반적으로 논항 DP의 투사를 완결 지으면서 주격, 대격이 부여되었음을 드러낸다.²⁹⁾ 그러나 “의”는 논항과 부가어를 막론하고 명사적 투사체에 수식어로 참여하는 명사적 구성체라면 무엇이든 그 구성체와 무차별적으로 결합하여 명사적 수식을 가능케 한다.³⁰⁾

- (52) a. 그 도시에서의 철수의 생활
 b. *그 도시에서가 철수가 생활했다.
 c. *철수가 그 도시에서를 생활했다.

김용하(1999)의 관찰에 의하면 “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명사적 수식에 참여할 수 있는 DP는 맨 명사구를 보충어로 하고 ∅가 투사를 완결 짓는 무표격 DP의 경우뿐이다. 또한 그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을, 의” 등이 격에 민감한 D-요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특성에는 격이 관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본고는 이를 더 확장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 29) “일반적”이라는 단서는 한국어에서 다중 격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중 격 출현의 경우에도 해당 DP들은 논항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다중 격 출현의 예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30) 여기서 “무차별적”이란 표현은 좀 과도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의”가 결합된 성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국어 화자들이 상당히 꺼리기 때문이다.
 (i) ???그 도시에서의 철수의 회사에의 버스로의 출근
 그러나 (i)과 같은 표현을 한국어 화자들이 꺼리는 것을 문법적인 이유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따른다. “의”가 결합된 성분이 여럿 나타나더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어떤 빈도에서 어색함이 나타나는지를 계량화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의 다중 출현이 어색해지는 데는 문체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다.

에 의하면 무표격 DP는 명사의 내부 논항으로만 인허되는데, 그 분포가 매우 제약되어 있다.

- (53) a. 철수는 [어머니의 막내아들 사랑]을 늘 질투했다.
 b. [?]철수는 [어머니 막내아들 사랑]을 늘 질투했다.

이런 고려로부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의”를 일종의 무상격(default case) 표지로 취급하는 것이다. 즉 “의”는 명사적 수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후 수단’적으로 실현되는 최종 D-요소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부사격 조사의 범주적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조사구의 구조와 조사들의 분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명사적 수식과 동사적 수식이라는 개념이 한국어에서 유효한 개념임을 제시하고 이를 관형성/부사성이라는 자질로 상정하였다. 최강 일률성 가설에 입각하여 모든 언어의 명사적 투사체가 동일한 양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본고는 한국어에서 P 요소인 후치사(=부사격 조사)가 명사에 가장 가까운 후접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명사적 투사체의 본질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Pesetsky · Torrego(2004)의 분석이 옳다면,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 P 요소인 전치사가 명사에서 가장 먼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도출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본고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로 보아 영어와 같은 언어의 P 요소인 전치사에 대응하는 P 요소 후치사이다. 따라서 부사격 조사가 이끄는 투사체는 후치사의 투사체인 PP이다.

둘째,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영어의 전치사를 막론하고 P는 D로 완결되는 명사적 투사체에 내포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위치 상의 차이는 도출의 결과이다.

셋째, 부사격 조사가 이끄는 부사격 조사구는 명사적 수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P 요소인 부사격 조사가 한국어에서 관형성 자질이 아니라 부사성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조사와 구조격 조사들도 명사적 수식과 동사적 수식에 참여하는 양상에 차이를 드러내는데, 각각 자신의 투사체를 이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명사적 투사체에 최종 D-요소가 현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 D-요소인 \emptyset 가 명사적 투사를 완결 짓는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PP이거나 비완결 D-요소의 투사체로 보이는 구성체들도 실상은 명사적 투사체의 완결적 DP이다.

여섯째, “의”는 최종 D-요소로서 명사적 수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후 수단’적으로 실현된다.

참고문헌

- 김동석·김용하·이재철. (2006). 자연 언어의 비정규적 주어에 대한 통합적 연구 (I)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정규적 주어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45, 33-76.
- 김영희. (1976).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 *어학연구* 12(2), 175-195.
- 김영희. (1981). 간접 명사 보문법과 ‘하-’의 의미 기능. *한글* 173·174, 153-192.
- 김영희. (1991). 무표격의 조건. *언어논총* 9, 5-32. 계명대학교.
- 김영희. (1999-). 사격 표지와 후치사. *국어학* 34, 31-58.
- 김영희. (1999-). 보죽어와 격 표시. *한글* 244, 75-109.
- 김용하. (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남기심. (1973). *국어 원형보문법 연구*. 대구: 계명대 출판부.
- 민현식. (1982). 현대 국어의 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9.
- 안병희. (1966). 부정격의 정립을 위하여. 남기심·고영근·이익섭 편 (1983) *현대국어문법* 99-101, 재수록,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오충연. (2001). *주제구조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이남순. (1988). *국어의 부정격과 격표지 생략*. 서울: 탐출판사.
- 이정훈. (2004). 국어의 문법 형식과 통사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훈. (2005). 조사와 활용형의 범주통용—‘이’계 형식을 대상으로. *국어학* 45, 145-175.
- 이정훈. (2006). ‘V-어V’ 합성동사 형성 규칙과 범주통용. *어문학* 91, 129-161.
- 이정훈. (2007). 문법 자질과 조사의 통합관계. *어문학* 96, 111-138.
- 임동훈. (1991). 격조사는 핵인가. *주시경학보* 8, 119-130.
- 임동훈. (2008). 다시 격조사는 핵이다—한정현(2003)을 중심으로—. *형태론* 10(2), 287-297.
- 임흥빈. (1999).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1-62.
- 최현배. (1937/83).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허 응. (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서울: 샘문화사.
- Abney, S. P. (1987). *English noun phrases in its sentential asp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Ahn, H-D. (1988). Preliminary remarks on Korean NP. In E-J. Back (Ed.), *Papers*

- from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pp. 1-15).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 Blake, B. J. (1994). *C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er, H. (1984). *Parametric syntax: Case studies in Semitic and Romance languages*.
Dordrecht: Foris.
- Bresnan, J. (1982). Control and complementation. In J. Bresnan (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pp. 282-390).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 Jacobs and P. S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pp.
184-221). Waltham, Mass.: Ginn and Company.
- Chomsky, N. (1974). *The Amherst Lectures*, Documents Linguistiques, Universite
Paris VII.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Michael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R. Freidin et al. (Eds.),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pp. 133-166).
Cambridge, Mass.: MIT Press.
- Donati, C. (2006). On *wh*-head movement. In L. L-S. Cheng and N. Corver (Eds.),
Wh-movement: Moving on (pp. 21-46). Cambridge, Mass.: MIT Press.
-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 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pp. 1-88).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Fukui, N. and M. Speas. (1986). Specifiers and projection. I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128-172.
- Grimshaw, J. (2005). *Words and structure*. Stanford: CSLI Publications.
- Hiraiwa, K. (2005). *Dimensions of symmetry in syntax: Agreement and clausal
architec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Kang, Y-M.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Kim, D-B. (1993). *The specificit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 Seoul: Thaeaksa.
- Marantz, A. (1997). No escape from syntax: Don't try morphological analysis in the privacy of your own lexic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2), 201-255.
- Matushansky, O. (2006). Head movement in linguistic theory. *Linguistic Inquiry*, 37(1), 69-109.
- Miyagawa, S. (2004). *On the EPP*. Unpublished manuscript, MIT.
- Pesetsky, D. and E. Torrego. (2004). Tense, Case, and the nature of syntactic categories. In J. Gueron and J. Lecarme (Eds.), *The syntax of time* (pp. 495-537). Cambridge, Mass.: MIT Press.
- Radford, A.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iliane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pp. 281-337). Dordrecht: Kluwer.
- Sigurðsson, H. (2003). *Meaningful silence, Meaningless sounds*. Unpublished manuscript. Lund University.
- Svenonius, P. (2004). On the edge. In D. Adger et al. (Eds), *Peripheries: Syntactic edges and their effects*, (pp. 259-287).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Van Valin, R. D. Jr. and R. J. Lapolla. (1997).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anabe, A. (1992). *Wh-in-situ*, subadjacency, and chain formation. In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2*, distributed b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Watanabe, A. (2006). Functional projections of nominals in Japanese: Syntax of classifier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4(1), 241-306.
- Yang, D-W. (1996). Issues in the minimalist syntax of Korean. In M-Y Kang (Ed.), *Lectures on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pp. 69-178). Seoul: Hankukmunhwasa.
- Yang, I-S.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김용하

760-749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54)820-5355
이메일: kyocheon@andong.ac.kr

Received: 4 February, 2009

Revised: 13 March, 2009

Accepted: 20 March, 2009